

광주·전남기자협회-동행재활요양병원 업무협약



광주·전남기자협회는 25일 동행재활요양병원(병원장 류기준·오른쪽)과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김효성 광주·전남기자협회장과 류기준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 동행재활병원에서 열렸다.

광주보훈병원, 세계수영대회 의료지원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은 최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료지원단을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세계수영대회 의료진 지원과 이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승무원양성과정' 성료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한 '승무원양성과정 Apply for the Crew!' (이하 승무원양성과정)가 참여 학생들의 호응을 받으며 최근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회, 故 박경완 기자 추모제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최기남)는 25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1993년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를 취재한 뒤 귀사도 중 순직한 무등일보 고(故) 박경완 기자 제26주기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추모제는 고 박경완 기자 유족과 최기남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 전·현직 사진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분향 및 헌화,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991년 무등일보 공채 4기로 입사한 고 박경완 기자는 1993년 7월27일 아시아나 보인 737항공기 추락사고를 취재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사하던 중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앞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모든 시설물·소지품 보안 물 샅 틈 없습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보안 책임지는 나영호 팀장



육군 중사 전역 후 보안업무 3년 출입구 검색·관람객 분쟁 해결도 야간 경기 끝나도 24시간 대비 “국제행사 경험 큰 자산될 것”

“대회 종료까지 수영대회 보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세계 수영 스타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15 일째를 맞았다. 관람객에게는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보안 검색 대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공황에서 쓰이는 특수 장비를 통해 모든 입장객의 소지물품을 면밀

히 조사한다. 자칫 무기류 등 반입금지 물품으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와 대회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에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단체인관람은 온 중학생이 손도끼를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가족과 등산이나 야영을 할 때 매번 가방을 체크방으로 착각한 해프닝이 있지만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보안업무를 위해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부대학교 및 조선대, 영주체육관에서 활약 중인 보안요원들이 있다. 보안업체 기도 컴퍼니 소속 나영호(27) 팀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나 팀장은 현재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내 모든 출입구 및 시설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육군 중사로 전역한 그는 2016년 보안업무를 시작했다. 첫 근무지는 KIA 타이거즈의 홈 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였다. 나 팀장은 “자신의 소개로 시설보안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일이 처음이었지만 금방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출입구 검색뿐만 아니라 관람객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한

다. “아무래도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는 일이다 보니, 가끔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지만 보안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기가 종료되고 경기장에 불이 꺼져도 그는 쉬지 않는다. “관중들과 선수들은 아무리 늦어도 오후 11 시면 경기장을 떠나지만 저희는 24시간 경기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관람객이 없어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시야 확보도 어렵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랐던 25일 나 팀장은 각 경기장 출입구를 돌며 보안상황을 확인 중이었다. 그는 “주·야 12시간 씩 이뤄지는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감이 심하지만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안전단에서 많은 배려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돕고 있어 한결 편합니다”라고 말했다. 국제행사 보안업무는 처음이라는 나 팀장은 “국제스포츠행사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며 “28일 선수권대회는 폐막하지만 이어지는 마스터즈 대회까지 경기장 보안을 책임지겠다”라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진도 신기마을 ‘1사1촌’

선착장·해변 일대에서 ‘바다가꿈’ 행사... 직거래 등 추진

목포 YWCA(회장 정이숙)와 진도 신기마을(어촌계장 김성석)은 지난 24일 피서철을 앞두고 신기선착장과 해변 일대에서 ‘바다가꿈’ 행사를 가졌다. ‘바다가꿈’이란 어민과 외지인이 함께 쓰레기, 어구 등으로 지저분한 어촌 해변을 가꾸고, 간단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어민과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날 ‘바다가꿈’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

터, 목포 YWCA 직원 및 회원 30여명과 신기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여했다. 바다가꿈 행사를 앞두고 목포 YWCA와 진도 신기마을은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사1촌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바다가꿈 행사 진행, 직거래를 통한 상호 발전 추구 등을 약속했다. 김성석 신기 어촌계장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을 해결하고, 도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어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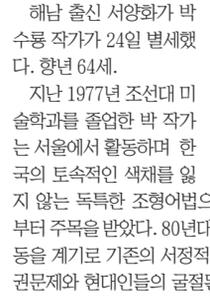
동신대, 교수·학생 재능 기부로 청소년 미디어 교육



동신대학교 교수와 재학생들이 재능 기부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단편영화·영상기자단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대에 따르면 방송연예학과, 뮤지컬·실용음악학과 교수와 재학생 10여 명은 26일까지 사흘간 동신대 캠퍼스에서 고흥지역 중·고등학교 70여 명을 초청해 ‘단편영화 캠프’를 진행한다.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영상·영화 제작 기량을 갖춘 지역 청소년들에게 단편영화 촬영 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7개 팀으로 나뉘어 동신대의 전문 방송 장비와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 우정 등 또래들의 고민을 다룬 7편의 단편영화를 제작중이다. 동신대는 지난 22일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전남 교육 영상기자단 캠프’도 진행했다. 동신대 차두옥 방송연예학과장은 “전남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상 교육 매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해남출신 박수룡 서양화가 별세



해남 출신 서양화가 박수룡 작가가 24일 별세했다. 향년 64세. 지난 1977년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토속적인 색채를 잃지 않는 독특한 조형어법으로 중앙화단으로 부터 주목을 받았다. 80년대 초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기존의 서정적인 예술관에서 인권문제를 현대인들의 굴절된 삶을 호곡에 옮긴 ‘5월의 노래’, ‘흔들리는 사람들’ 등 인간 시리즈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고대 유적지의 암각화 느낌이 나는 ‘이집트인의 꿈’ (Egyptian Dream), ‘선사시대의 꿈’ 등의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박 작가는 간경화로 오랫동안 투병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고 작업활동에 매진했으며 지난 2007년 광주시립미술관 ‘출항작가 초대전’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발인 27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문의 02-3010-229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구와 땡칠이’ 남기남 감독 별세



아동 영화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를 연출한 남기남 감독이 지난 24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7세. 유족에 따르면 당뇨 합병증을 앓던 남 감독은 3개월 전 암 진단을 받고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날 오후 6시 29분 숨졌다. 남 감독은 “사흘이면 영화 한 편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충무로에서 ‘빨리 찍기의 대가’로 꼽혔다. 약 40년간 100여편이 넘는 작품을 찍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서라벌예술대(현 중앙대)를 나온 남 감독은 1972년 김지미가 주연한 ‘내 딸아 울지마라’로 데뷔했다. 초반에는 ‘불타는 정무문’ (1977년), ‘불타는 소림사’ (1978년) 등 B급 액션 영화를 주로 선보였다. 본격적으로 아동 영화를 연출한 것은 1989년 ‘영구와 땡칠이’부터다. 심형래 주연으로 당시 비공식 집계로 270만명을 동원했다. 남 감독은 2009년 제47회 영화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영화인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

- 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

- 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 일정 기간 위탁 인연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

- 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박병목님 별세, 유언·준현씨 부친상, 최지원씨 시부상=발인 26일(금) 오전 8시 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